

濟州市 瀛洲 6景의 觀光資源化 方向

張 聖 洙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濟州市 瀛洲 6景 開發 觀光資源化
- III. 濟州市 瀛洲 6景의 開發意義와 活用方案
- IV. 濟州市 瀛洲 6景 開發의 基本方向
- V. 濟州市 瀛洲 6景 開發에 대한 專門家 面談調查
 - 〈표-1〉 전문가 면담 조사표
 - 〈표-2〉 전문가 면담조사결과의 골자
- VI. 맺음말

濟州市 瀛洲 6景의 觀光資源化 方向

張 聖 洙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I. 머 리 말

- 최근 들어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높게 인식되고는 있으나, 국내 문화산업의 풍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다지 변화가 없는 듯하다.
- 제주도의 경우 자연자원을 주 대상으로 한 「보는 관광」이 이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관광상품으로서 야외스포츠 활동과 더불어 지역특성상 개발잠재성이 풍부하다고 보아지는 문화관광의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특히 세계화·지방화란 시대흐름에 따라 제주도의 상징성 보존이란 차원에서 문화관광의 활성화가 적극 모색되고 있으나, 구체적 소재를 둘러싼 개발방향에 대한 논의는 서설적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이 글은 작년 8월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가 제주시에 보고한 「제주시 영주 6경 개발계획: 기본구상」의 내용 일부를 소개·제시함으로써, 제주도의 상징성이 큰 영주 10경 또는 12경의 관광자원화 방향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의 여론을 다시 환기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게재한 것이다.

II. 濟州市 瀛洲 6景 開發 觀光資源化

- 제주에서는 옛부터 지역의 대표적인 경관을 일컬어 「瀛洲 10景」 또는 「瀛洲 12景」이라고 격찬하여 왔다.

-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제주시 종합개발실시계획」(1994~2001)은 이들 가운데 6경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龍淵夜帆

○ 개발방향

- 용연지구 일대 자연, 인문, 문화관광·환경 실태조사
- 주변 마애명, 식생 등 정비보존계획 수립
- 수질환경 보존을 위한 준설시행

○ 개발계획

- 위 치 : 제주시 용담동 용연, 용두암 일대
- 목표년도 : 2001년
- 총사업비 : 11억 5,000만원

〈세 부 추 진 계 획〉

- 용연공원계획과 연계추진
- 옛 선인들이 이용한 선박 유람선제작 선상관광 - 선박내 토속음식점, 향토·민속기념품 판매전 개설
- 마애명, 암벽식생 정비보존
- 마애명을 이용한 기념품제작, 탁본, 인쇄, 관광상품화
- 야간관광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 관광명소 홍보를 위한 멀티비전 시설

2) 瀛邱春花

○ 개발방향

- 옛정취를 풍길 수 있도록 재현
- 방선문, 암벽식물 보존 정비
- 문화관광지 조성

○ 개발방침

- 문헌기록에 의한 보존 및 복원
- 문화, 관광위락시설 유치
- 지역주민 참여 유도

○ 개발계획

-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방선문」일대
- 목표년도 : 2001년
- 총사업비 : 21억원

〈세 부 추 진 계 획〉

- 세부추진방향 설정 (학술용역 검토후 추진)
- 보존 및 복원
 - 절대보존지역 구분관리
 - 마애명 조사 보호
 - 진달래꽃 등 주변 식생조사 보식
- 문화 위락시설 유치
 - 유치지역 설정 (학술용역 검토후 추진)
 - 옛 선인들의 풍경모형 전시관건립
 - 문화학습장 조성
- 관광산업 연계사업
 - 마애명 탁본, 기념품 판매유치
 - 옛 선인의 놀이마당 재현 (관광객 참여 유도)

3) 古藪牧馬

○ 개발방향

- 중산간일대 관광목장 연계개발
- 관광객 직접참여 방안유도
- 지역주민 참여 개발

○ 개발방침

- 민자유치 유도
- 방목지 및 관광승마장 연계
- 유휴지 이용 옛선조들의 농경생활 재현

〈세 부 추 진 계 획〉

- 위 치 : 제주시 중산간 일대
- 목표년도 : 2001년
- 총사업비 : 11억원
 - 제주도 축소모형, 승마장 설치
 - 밭갈이, 테우리(말모는 모습) 등 재현
 - 중산간 관광코스일대 향토포장마차 운영(토종닭, 돼지, 꿩 등 이용)

4) 紗峰落照

- 사라봉 공원개발계획과 연계추진

5) 山浦釣魚

○ 관광자원화

- 서부두일대 어선을 이용 야경을 볼 수 있도록 선상관광 유도
- 소규모 야외 활어센터 조성
- 낚시터, 놀이배 등 주민관광 참여 유도
- 관광객 낚시대회장소 제공

6) 橘林秋色

○ 관광자원화

- 중산간일대 감귤원, 관광농원 관광객 참여유도
- 관광객 식수단지 및 재배유도
- 일정구간 감귤나무 가로수 식재
- 맛과 향기를 즐길 수 있는 감귤원 조성
- 감귤원의 가을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 제공

Ⅲ. 濟州市 瀛洲 6景의 開發意義와 活用方案

- 영주 10경 또는 12경 가운데 입지적 근원을 제주시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 「사봉낙조」, 「영구춘화」, 「굴림추색」, 「고수목마」, 「용연야범」, 「산포조어」 등은 관광적 측면에서 여러가지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 즉 주간경관과 야간경관, 춘하추동의 계절경관, 농·축·수산업의 산업경관, 바다와 산의 자연경관 등 경관체계가 다양한데, 현대적 관광의 측면에서 이들의 개발의의와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연과 문화가 조화된 관광개발

제주시 6경의 개발은 자연과 문화가 조화된 문화관광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옛부터 제주도의 풍치 가운데 대표적인 경관을 일컫고 있는 영주 10경이나 12경은 이조시대의 옛 선인들이 산수가 수려한 자연경관을 찾아 산수를 즐기고 시와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살아있는 문화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특히, 방선문과 용연계곡에 마애명 약 60개는 그 흔적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2)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관광개발

제주시 6경의 개발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관광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라산을 배경으로 많은 우마가 초원에서 뛰노는 모습인 고수목마는 산에서 말을 풀어 기르는 풍경의 산악경관인데 반해, 산지포에서 어부들이 낚시를 하는 모습인 산포조어와 제주시 사라봉에서 바다로 해가 지는 모습인 사봉낙조는 해상경관으로서 서로 대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3) 관광산업과 1차 산업의 연계개발

제주시 6경의 개발은 관광산업과 1차 산업의 연계육성을 가능하게 한다. 6경 가운데 굴림추색은 감귤원에 가을이 되어 굴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경치를 말하는데, 관광농원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또한 고수목마는 목마장에 말을 풀어서 기르는 풍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광목장으로, 산포조어는 산지포에서 어부들이 낚시를 하는 모습으로서 관광어업으로 육성할 수 있어 제주시 6경의 개발은 관광산업과 1차 산업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줄 수 있다.

4) 주·야간 관광활동을 강화시킨 관광개발

제주시 6경의 개발은 주·야간 관광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관광개발이 될 수 있다. 사봉낙조와 용연야법은 그 개발정도에 따라 야간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사봉낙조는 사라봉에서 바다로 해가 지는 광경을 바라보는 경관인데, 칠머리당굿 등 무형문화재를 야간에 공연하는 경우라든가 밤에 용연에서 뱃놀이하는 풍경의 용연야법을 재현하는 경우 야간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5)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제주시 6경의 개발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줄 것이다. 6경의 개발은 지역성이 강한 소규모 시설중심의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더욱이 계획대상지구내 토지가 대부분 지역주민의 소유이고 기존 산업인 농·축·수산업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발효과도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것이라 생각된다.

Ⅳ. 濟州市 瀛洲 6景 開發의 基本方向

- 역사적 이미지를 가진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 제주도의 유물, 유적 그리고 전통적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충시킨다.
 - 자연경관 위주의 관광지를 개발방식을 탈피하여 향토성 있는 제주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광자원화를 도모한다.
 - 제주시 문화유산의 고유성과 원형보존,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의 확립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 장소적 원형과 기존 도시계획을 최대한 존중한 6경의 분산적 개발
 - 제주시 영주 6경 각각의 원형을 고려하는 한편 예전의 자원가치를 재현해 낼 수 있는 적정부지를 모색하여 분산 개발한다.
 -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 등 이미 수립된 상위계획 또는 관련동위계획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개발한다.

- 체류형 관광지 조성 또는 경유형 문화관광코스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 계획대상부지의 개발잠재력 분석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적극 검토한다.
 - 이용객의 접근용이성 및 야간관광 활성화의 가능성과 함께 제주시 문화유산 거점지역들을 연계시키는 문화관광코스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서 추진한다.

- 지역주민의 사업참여를 고려한 도입기능 및 도입시설의 결정
 - 관광농원, 관광목장, 관광어업 등 관광사업과 1차산업과의 연계개발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도입기능 및 도입시설을 검토한다.
 - 지역주민의 소규모 자본참여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관광시설을 유치한다.

- 비경제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규모의 적정화
 - 계획대상부지의 자연상태를 최대한 이용하는 측면에서 시설개발을 모색한다.
 - 향토성이 짙은 소규모 관광시설 중심의 개발방식을 채택한다.

- 전원적인 위락공간 조성 및 주변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시설 배치
 - 기존도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지형조건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시설함으로써 전원적인 위락공간을 조성한다.
 - 각 도입시설은 기능·형태·규모 및 이용특성을 감안하여 주변공간과 어우러지게 적정 배치한다.

V. 濟州市 瀛洲 6景 開發에 대한 專門家 面談調查

- 영주 10경 또는 12경에 해당하는 경치중에서 제주시에 기원을 두고 있는 6경을 복원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는 안에 대해 도내 거주하는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면담조사표를 작성하였다.

〈표-1〉 전문가 면담 조사표

1. 영주 6경(사봉낙조, 산포조어, 용연야범, 영구춘화, 고수목마, 굴림추석)을 관광자원화 한다는 제주시의 발표를 들은 적이 있는지, 혹은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2. 그런 계획에 찬성하는지? (투자비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3. 영주 6경을 개발해서 자원화한다면 어떻게(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4. 개발할 경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5. 개발과정에서 향토성과 역사를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6. 개발할 경우 현재의 어느 장소로, 어느 정도 규모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공연장, 농원 등의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숙박체류지로서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산포조어」의 산지포는 매립되는 등 변화가 많은데, 가능하다면 영주 6경 각각에 대해)
7. 영주 6경이 관광지화될 경우 그 유치대상을 어느 연령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가족단위·단체관광·개별단위, 노년층·청소년층, 여자·남자 등)
8. 영주 6경의 개발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9. 선생님께서 개발구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시겠습니까?

- 전문가 의견조사의 대상이 될만한 대학교수, 향토사학자, 소설가, 화가, 사회단체 관계자 등 50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1995년 6월 21일~7월 24일까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절반이상이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이유로 면담을 기피한 가운데 그 중 23명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 면담조사에서의 질문은 6경이 관광자원화되어 관광지로 가꾸어진다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형태로 관광자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몇 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한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조사결과 1번과 2번, 6경을 관광자원화 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그런 계획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알고 있었다」는 6명), 6경을 관광자원화하는 일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15명) 그러나 찬성을 표시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지금 상태 그대로 자연을 방치할 경우 자연이 더욱 훼손된다는 것을 개발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즉 6경이 관광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치보다는, 파괴되어 가고 있는 자연에 대한 보호책으로 개발에 찬성의견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 3번과 6번, 6경의 개발방향(6경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장소이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문화관광지로서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인공적인 시설물 설치를 되도록 자제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6경이 시내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시내의 것을 이용하도록 해야 하며, (일부 현지에서 가까운 곳에 민박을 지정해 운영한다거나) 경관지 주위에는 숙박시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각각의 경관지에 대해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봉낙조의 부지인 사라봉의 경우 영주 10경 중 제정 당시의 자연을 가장 잘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미 시민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아파트 등 건축물들로 인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주변경치는 훼손된 상태이다. 그리고 제주도의 기후적 특징으로 맑은 날이 드물어 낙조풍경을 보기가 쉽지 않으므로, 상설적인 관광자원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사라봉에 대해서는 인공적인 시설물을 건축하기보다는 자연을 더욱 가꿔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기에 사라봉주위에 신설중인 박물관과 현재의 오일장 부지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산포조어의 경우 매립되기 전의 산지천 주위와 금산(禁山)주변이었으나, 지금은 바다가 매우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 낚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게다가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건축됨으로 인해 조망도 많이 상했다. 그리고 이미 도내 여러 곳에 낚시터가 만들어져 있으므로 산포조어를 복원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많았다.
- 용연야범의 경우 우선 물을 되살린 다음에 개발구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먼저 하수의 유입을 막아 용연의 수질을 본래의 깨끗한 상태로 회복시키고, 용연의 수원을 보호해 중산간에서 퍼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용연주위로 도로가 포장되고, 주택들이 근접해 있어 관광자원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응답이 많았다. 반면, 용연주위로 펼쳐진 탐동과 산지포간의 바다에 전통의 무동력선(태우)를 띄워 뱃놀이를 부활시키고 해녀들의 해산물 채취과정을 직접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 영구춘화의 경우는 그 주변이 오라골프장안에 포함돼 버려서 쉽게 구경할수 조차 없는 곳이 돼 버린 상태이다. 신선들이 방문했던 곳이라 해서 방선문이라고 불리는 바위 주위로 옛날에는 진달래가 많이 피어 있었지만 지금은 진달래도 몇그루 남아 있지 않다. 한라산 계곡에서 시작돼 한천으로 흘러가는 물줄기의 근원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이곳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우선 물을 맑게 되살리고 주위에 진달래를 더 많이 심고, 주변에 남아있는 마애비들을 잘 가꾸고, 기본적인 시설(화장실과 음수대, 간단한 음료 판매대 등)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서 불편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과거에 관리들이 즐기던 여러 장소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인 장소를 관광자원화해서 과연 관광객들의 찾겠느냐는 반응을 보이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 고수목마의 경우도 옛날의 방목이 사라지면서 지금에 와서는 옛날의 정취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수의 응답자들은 한라산 주위에서 방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이 고수목마를 살리는 최선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응답자들은 방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관광목장을 지정해 관광객들이 말을 타고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의 관광승마장을 발전시키고, 관광목장을 지정·육성하여 목장안의 숙박시설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시내에서 만들어서 말을 타고 시내를 일주한다든가 오름을 조랑말 트래킹코스로 가꾸자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방목이 사라진 이상 고수목마를 되살리는 일은 의미없는 일이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 굴림추색을 제주시내에서 관광자원화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감귤산업의 중심이 이미 서귀포시인 만큼 관광자원화 한다고 해도 그것은 서귀포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향토사학자들 중에는 굴림추색의 근원지인 오현단 주위 등에 유래를 밝히는 유허비를 세우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 밖에도 과거의 영주 6경 만을 고집할 필요없이 종교적으로 가치있는 사찰이나, 맑은 바다를 포함해 '新 瀛洲 8景이나 9景'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제주의 시인들이 쓴 시를 시비로 세운다든가 제주 설화의 인물들을 형상화하는 작업들이 6경 개발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4번 항목, 개발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환경파괴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개발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관광자원화할 경우 관광객들이 찾아올 만한 장소가 될 것인지 그 가치에 대한 재고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 등을 꼽았다.
- 7번 항목, 유치대상에 대한 질문에는 굳이 대상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족단위의 관광에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 8번과 9번, 6경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물음에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인력, 자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 이상 9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공통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① 제주시 6경의 개발은 자연자원을 되살리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 ②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기 보다 주위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옛날의 영주 6경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치를 포함하여 신 영주 8경 등을 개발해야 한다.
 - ④ 제주의 문화와 관련하여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 즉, 제주적인 것의 형상화와 연관하여 6경이 개발되어야 문화관광지로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표-2〉 전문가 면담조사결과의 골자

제주시 6경	전문가 의견의 주요 골자
사봉낙조	진립중인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주변 관광자원들과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유람마차 또는 회전차량의 도입
용연야범	용담해안과 탐동간을 운항하는 관광유람선 취항 및 선착장 설치
산포조어	제주항 주변의 바다가 오염된데다 건축물이 많이 늘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도내 여러곳에 낚시터가 개발돼 있으므로 복원의 의미가 없음
영구춘화	진달래 식재면적의 확충, 마애비의 정돈 및 연출방안 모색, 관광편익시설의 확충
고수목마	관광목장의 지정 및 숙박시설의 유치, 관광승마장을 발전시킨 조랑말 트래킹코스 개발
굴림추색	감귤산업의 중심지인 서귀포시에 유치함이 바람직함, 굴림추색의 근원지인 오현단 주위에 유래를 밝히는 유허비를 건립해야 함

Ⅵ. 맺 음 말

- 21세기 세계화·지방화시대의 핵심과제가 될 문화분야의 상품경쟁과 판촉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우선 영주 10경 또는 12경 등과 같이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자원에 관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폭넓은 전략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눈앞의 수익을 위해 의욕만을 앞세운 문화관광상품들이 줄속으로 기획·개발될 경우 소중히 계승되어야 할 지역문화가 관광객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비취짐과 동시에 지역의 아까운 예산만 축내는 결과를 빚을 위험성을 늘상 경계해야 한다.
- 관계전문가의 여론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제주시 영주 6경의 관광자원화는 「친환경적 개발」, 「상징성을 중시한 계승·발전」, 「제주적 전통의 가시화」라는 개발철학하에 입지여건과 투자환경을 신중히 고려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